

오순절 후 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6월 2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6 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새 42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6 번 시편(Psalm) 10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야고보서 (James) 1:19-27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찬양대
설 교 Sermon	“ 신앙을 삶으로(3) –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 (Living out Your Faith – Piety before Go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12 장 “너 성결키 위해” (새 42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하다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곤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127, 합 32,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개역 약 127**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NIV James 1:2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7 (주일)	6/28 (월)	6/29 (화)	6/30 (수)	7/1 (목)	7/2 (금)	7/3 (토)
	신32	신33,34	수1	수2	수3	수4	수5:1-6:5
본문	시119:121-144	시119:145-176	시120-122	시123-125	시126-128	시129-131	시132-134
	사59	사60	사61	사62	사63	사64	사65
	마7	마8	마9	마10	마11	마12	마13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6/30수 오후7:3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후 7:2-16)
토요 새벽기도회(7/3토오전6:30)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시 44:8-26)

지난 주일(6/20) 말씀

“**신앙을 삶으로(2) – 미혹을 받을 때에**” (약 1:12-18)

한글 성경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나싸'라고 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경우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연단' 또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으로, 또한 어떤 경우에는 '미혹' 또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으로 각각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 따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정결케 하신다면, 우리는 여러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이를 기쁘게 여기며, (오히려) 이를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지만, 만약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유혹이거나, 또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미혹으로서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막연히) 인내하며 참아낼 것이 아니라, (단호히) 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이겨내는 시험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 즉, 우리의 죄된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시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며(약1:13), 또한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사실(약1:17-18)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혹을 받을 때, 시험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